



# 科學技術人的 價値觀

## The Sense of Values of Scientific Engineers



鄭斗喜\*

Chung, Doo Hee

\* 농어업토목기술사.

우진건설엔지니어링 기술고문.

과학기술은 우리 인간에 挑戰해 오는 자연의 각종 不安要素를 除去하거나 또는 輕減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窮極的 목표인 행복을 增進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은 바로 여기에서 자긍심과 가치관을 찾아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계 등 모든 분야 특히, 政治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노라면 우리는 지금 아무런 哲學이 성립되지 않고, 社會通念도 헛갈리며, 倫理 道德이 무너져 가는 그런 不確實性 時代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시대 또는 混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事物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가치관을 이야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가치관은 時代變遷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날 우리 祖上들이 가지고 있던 意識構造와 가치관은 어떠했으며, 이것이 지금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두고 글을 씀은 한편으로 閑人閑筆의흥은 있으나, 조상들이 진리로 여겼던 가치관 중 지금도 변치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가치관이 과연 무엇인가를 照明 해 봄으로서, 세계화 개방화의 無限競爭時代에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젊어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 과학기술인의 가치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가를 더듬어 봄은 그리 無益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써본다.

新羅 말의 대학자인 崔致遠은 경주사람으로서 12세에 唐나라에 留學하여 17세에 科擧에 급제, 당나라 朝廷으로부터 紫金魚袋의 下賜를 받고 높은 벼슬을 하였다. 黃巢亂 때에는 高駢의 從事官으로 따라가 檄文을 써서 이름을 높이기도 하였는데, 29세에 귀국하여 벼슬을 하다가 말년에 海印寺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 한다. 그의 文人들로 高麗에 벼슬한 자가 많았으며, 四六集 1권과 桂苑筆耕 20권이 그의 著書이고, 鳳巖寺碑文과 崇福寺碑文도 그가 纂한글이라 하는데, 그가 당나라 留學 時 치렀던 과거시험의 試題는 무엇이었으며 그의 答안 문장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口傳에 의하면 그 때의 試題는 “人間四喜”로 써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네 가지의 으뜸 되게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논술하는 것이었다 한다. 즉,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되는가 하면 또한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게 되는데, 一生을 통하여 萬人이 누구나 共感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으뜸 되게 기쁜 일이 무엇일까?

이를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

나 事物에 대한 洞察力과 문장력이 뛰어났던 최치원은 그 넓은 당나라 方方谷谷에서 구름같이 물려든 수많은 학자들을 물리치고 壯元으로 급제하였다 하는데 그의 답안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한다.

七年大旱 逢甘雨  
華燭洞房 無月夜  
千里他鄉 逢故人  
少年登科 掛名示

즉, 애타게 긴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줄기 단비가 짝악 내리는 것, 두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 달 없는 캄캄한 방에 첫날밤을 맞이하는 것, 아주 먼 타향에서 우연히 고향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弱冠의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그 이름이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으뜸 되게 기쁜 일이라 하였다.

최치원은 七年이니 千里니 無月夜니 少年이니 하는 등의 接頭 및 接尾文을 첨가하여 大旱逢甘雨, 華燭洞房, 他鄉逢故人, 登科掛名示 라고 썼던 어느 당나라 선비를 물리치고 장원으로 급제된 것이라 하는데, 그는 칠 년이 꼭 칠 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象徵的으로 아주 긴 기간을, 그리고 천리도 꼭 천리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아주 먼 거리를 표현하는 漢文 文章의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驅使하여 애타는 가뭄 끝에 비를 만날 때의 기쁨이나 타향에서 우연히 고향사람을 만날 때의 기쁨을 더 한층 강조하고 있다.

또한, 등과과명시 앞에 소년을 그리고 화촉동방 뒤에 무월야를 덧붙임으로서 과거에 급제되어 이름이 내 걸리는 기쁨과 결혼하여 첫날밤을 맞이하는 기쁨을 아주 잘 描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잘 짜여진 七言絶句의 한문 문장은 간결하면서도含蓄的으로 그 당시의 時代相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他 産業의 발달 이전, 衣食住의 기본적 生活 需要가 오직 농업에만 의존되던 시대라 농사짓는 것만이 살아가는 수단이며, 水利施設이 없어 하늘만을 쳐다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길고 지루하게 가뭄이 계속되어 밭곡식이 타 들어가고 논바닥은 거북이등 모양으로 짝 짝 갈라져 애타고 있을 때 갑자기 한줄기 소나기가 짝악 내리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으랴.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 일가친척 모두가 축복하여 주는 가운데 부모님이 알뜰하게 정해 준 양가집 신랑 또는 신부와 처음이자 단 한번 결혼하는 것 또한 누구나 共感하는 일생의 으뜸 되는 기쁨인데, 마침 달이 없는 캄캄한 漆黑밤이라 창호지 구멍에 눈을 대고 밤새 들여다보는 것은 동리 아낙네들의 감시(?)를 벗어나 둘만의 時空을 갖는 첫날밤이 더욱 기뻐으리라.

交通手段의 발달 이전, 徒步로 며칠을 두고 힘겹게 접근한 他關에서 뜻밖에 고향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록 평소에 잘 친숙하지 못한 사람끼리라 하더라도 억제치 못 할 반가운 마음이 울컥 생기는 것이 人之常情일 것이다.

科擧及第는 벼슬을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벼슬길에 오르면 이름을 높일 수 있고 權力과 富를 쉽사리 누릴 수 있다고 보는 수많은 선비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刻苦의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되어 자기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을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이 또한 어디 있었으랴.

이렇게 千年 전 그 옛날에 최치원은 우리 조상들의 “人間四喜”를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하게 잘 묘사하였던 것이며 이는 가까운 백년 전 까지만 해도 固着化된 意識構造에 바탕을 둔 우리 조상들의 변함없는 가치관이었던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백년간, 특히 최근 30년간 우리에게겐 너무도 많은 變革이 일어났다.



즉, 농·어촌마을 중심 集居形態의 住居社會가 도시중심 定住體系로, 농업 중심 原始的 1次産業 經濟組織이 상·공업중심 2·3차산업으로, 自給自足 閉鎖經濟體制가 資本主義的 市場經濟體制로, 그리고 儒敎的 封建的 가치觀의 社會가 自由民主主義的 市民社會로의 變革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現代人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어떻게 照明 되어지고 評價되어질 수 있을까?

긴 가뭄 중 비가 오는 것은 틀림없이 기쁜 일 이겠으나, 산업의 多岐化 발달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다 타 산업에 종사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 그리고 水利施設의 完비로 때에 따라서는 일부 農民들까지도 긴 가뭄에 비 내리는 것이 일생에 으뜸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결혼이란 일반인에게는 일생에 중요하고 기쁜 일로 꼽혀지겠으나 만인이 공감하는 으뜸 되게 기쁜 일은 아닌 것으로 변질되었다. 신앙에 歸依하여 결혼을 마다하는 어느 종교계 사람들, 獨身으로 학문과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쉽사리 離婚을 하는 그런 불행한 결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동안 결혼풍습이 달라져 많은 신랑신부가 첫날밤 아닌 첫날밤을, 그리고 창호지 문짝 달린 단칸방이 아닌 照明燈이 燦爛하나 비밀스러운 관광지의 호화 호텔 방에서 첫날밤을 지내는데 달이 없는 첫날밤을 일생에 으뜸 되게 기쁜 것이라고 固執할 수는 없게 되었다.

지금은 각종 교통수단이 고도로 발달하고 여행 할 일이 많아 아침에 科總會館에서 만난 사람들 오후 부산에서 쉽게 만나게 되고, 하루 이틀 후면 동리사람을 이웃 나라에서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으니 他鄉에서 아는 사람 만나는 기쁨이 별 것이 아닐 것이다. 海外旅行을 하다 보면 空港 등에서 많은 한국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적지 않은 사람이 한국사람이 아닌 체하는 것은 고국사람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警戒心 등이 앞서기 때문일 게다.

과거시험이 옛날에는 朝廷에 登用할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현재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高等考試 및 각종 國家考試가 行政관료, 기술 관료, 판·검사 외교관 및 각종 전문가를 뽑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출세를 하여 權力과 富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종 고등고시와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渾身의 노력 끝에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이들 시험에 합격되어 그도 어린 나이에 고급관료, 판검사, 외교관 등과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각종 전문가가 되는 것은 지금도 누구나 공감하게되는 일생에 으뜸 되게 기쁜 일 중의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政治論理가 行政을 지배하고 行政便宜가 技術을 지배하여 技術人은 같은 專門家이면서도 다른 전문가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여왔다. 정부 내에서도 技術考試 출신들이 行試 출신들 보다 승진 및 보직 등에서 푸대접을 받다보니 국가의 주요 政策樹立과 企劃, 豫算編成 등에서 기술인의 주도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

그러나 WTO, OECD에 의한 包括的 서비스 개방이 200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지금 마땅히 정부는 思考의 構造調整으로 반드시 잘못된 國政慣行에 대한 改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對外競爭力을 強化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기술인도 더욱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참으로 우수한 技術處理能力을 갖춘 專門家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 세계는 國際化, 世界化니 하는 말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인은 국가가 다르며 언어와 풍습이 다른 남들이 認定하고 信賴할 수 있는 그런 知識勤勞者가 되어야 살아 남을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 社會는 때로는 良貨가 惡貨에 의해 驅逐되는 인간사회이기도 하나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構成員 모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人은 社會적으로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이거나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늘 自矜心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21세기의 知識基盤經濟社會에 副應할 수 있는 高效率·低費用

構造의 科學技術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우리 인간에 挑戰해 오는 자연의 각종 不安要素를 除去하거나 또는 輕減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窮極的 목표인 행복을 增進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은 바로 여기에서 자긍심과 가치관을 찾아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게으르면 아무 것도 해 낼 수 없다. 춥다고 게으르고 덥다고 게으르며, 배고프다고 게으르며 배불러서 노곤하다고 게으르며, 이르다고 게으르고 늦었다는 핑계로 게을러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바보는 道라도 깨칠 수 있지만 惻愴한 게으름뱅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聖語」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원고 접수일 1999. 8. 12)